

지하 80m, 길이 10km 지하터널 ... 서울 서남부 교통 '확' 바꾼다

West Underground Expressway

Toward
Global
Top Tier



The West Expressway, always plagued with traffic congestion, goes underground. The West Underground Expressway is the largest underground tunnel project in downtown Seoul. Hyundai E&C introduced a cutting-edge system to manage workers with access to confined space. Against the backdrop, special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West Underground Expressway which is slated to be completed in 2021. As the second episode of Hyundai E&C's original web drama, released in July, is set in the construction site, it played a role in showcasing the construction capability of Hyundai E&C. [▶ Continued on page 6, 7](#)

서울 단골 정체 도로의 지하화, 도심 최대 규모의 지아 터널 공사, 도심지 현장 최초의 최첨단 밀폐공간 작업자 관리 시스템 도입 -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인 서부 간선 지하도로 현장은 규모와 중요성 면에서 현대건설의 대표 토목공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26일 공개된 현대건설 웹드라마 <현대건설 EPO2. '빨'레는 삶의 현장>의 주 무대에도 등장해 현대건설의 시공력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 관련기사 6, 7면](#)

Hyundai E&C takes the lead in creating jobs for youth

Hyundai E&C has set out to seek win-win cooperation with its subcontractors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young job seekers to get employed.

Korea's primary builder held the Hyundai Technical Education Institute & Hyundai E&C Subcontractors Job Fair on August 13,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ith an aim to cultivate professionals and serve as a bridge between job seekers and employers. The event, held in the Hyundai Technical Education Institute in Seoul, was participated by about 100 trainees of the Institute and around 30 subcontractors of various specializations such as civil work, building work and plant construction. The job fair successfully increased the possibility for small and medium-sized subcontractors to hire excellent personnel and offered a chance for job seekers to get a competitive and decent job.

The Hyundai Technical Education Institute has trained approximately 36,000 skilled professionals based on its knowhow on the operation of construction-related vocational program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7.

'현대건설 기술교육원-협력사 채용박람회' ...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다

현대건설이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건설은 8월 13일 업계 최초로 '현대건설 기술교육원-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열고 전문 인재 육성에서 취업까지 직접 매칭(matching)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교육원생 100여 명과 토목·건축·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 30여 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협력사들은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구직자들은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노원석 삼우설비 대표이사는 "최근 젊은 층의 건설업종 기피 현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검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원을 직접 인터뷰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1977년 개원한 이래 건설기술교육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3만6000여 명의 인력을 배출해 온 국내 건설업계 유일의 건설전문 인력양성기관이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업계 요구에 부응한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만족도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CONTECH: Technologic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

Hyundai E&C provides overseas volunteer program in Vietnam

H-CONTECH, an overseas volunteer program of Hyundai E&C, was held in Hanoi and Haiphong areas in Vietnam for about two weeks from August 2.

H-CONTECH, coined from the acronym of Hyundai E&C, construction and technology, is the first overseas volunteer program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designed to exchange construction technologies with foreign institutes. The second volunteer team consisting of 10 executives and staff member of our company and 35 college volunteers conducted a wide range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y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for local prelimin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ainting murals, offering cultural performances and promotional booths, and suggesting ideas on appropriate technology.

Employees of the R&D Division and local professors of the Universit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held a construction technology seminar to share technological



prograwess of Hyundai E&C and relevant research cases on August 7. Next day, Korean college students had a meaningful chance to

exchange construction-related technology and culture with local counterparts at the College of Urban Works Construction.

해외기술봉사단 'H-CONTECH'... 베트남에서 기술·문화 교류

12박13일간 베트남 하노이·하이퐁에서 봉사활동 펼쳐

우리 회사의 해외기술봉사단 'H-CONTECH(에이치컨텍)'이 8월 2일부터 12박13일간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대건설의 'H'와 건설(Construction)·기술(Technology)의 이니셜을 딴 H-CONTECH은 건설 업계 최초의 기술교류형 해외봉사

단이다. 10명의 임직원과 35명의 대학생 봉사자로 구성된 이번 2기 봉사단은 베트남에서 ▶현지 초·중학생 대상 교육봉사 ▶벽화 그리기 노력봉사 ▶문화공연 및 홍보부스 운영 ▶적정기술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8월 7일에는 우리 회사 연

구개발본부 직원들과 베트남 현지 교수 등이 교통운송대(UTC)에서 현대건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연구 사례를 공유하는 '건설기술세미나'를 열었다. 이어 8일에는 건설전문대(CUWC)에서 한국 학생과 현지 학생들이 양국의 기술과 문화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회사 관계자는 "임직원과 대학생들이 합심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양국 간 문화·기술 교류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일회적 이벤트성 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하게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H-시리즈 ... 침실수납·스터디룸 강화

우리 회사가 지난달 'H-클린현관'을 시작으로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한 두 번째 힐스테이트 공간 설계를 선보인다.

우리 회사는 최근 힐스테이트 POE(Post Occupancy Evaluation: 거주 중인 고객의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반영한 주거 트렌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부 침실의 선택평면인 'H-드레스퀘어'는 드레스룸 면적을 기존 대비 두 배로 확장했다. 기존의 데드스페이스(Dead Space)였던 욕실과 파우더룸의 연결 공간에

시스템 가구를 배치해 수납 편의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자녀방에 적용되는 'H-스터디룸'은 독서실처럼 집중도 높은 학습공간을 제공한다. 이 공간은 학생들의 취향이나 학습 패턴에 맞춰 책상·책장 등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양쪽 벽면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평면을 '힐스테이트 속초 센터럴' '힐스테이트 범어 센터럴' 현장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2018 현대건설 혁신대상 심사

우리 회사가 8월 16일 본사 5층 미팅룸에서 '2018 현대건설 혁신대상'의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2011년 도입된 '현대건설 혁신대상'은 업무에 변화와 혁신 동기를 부여하고 성장 기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총 73개 과제(조직 부문 47개/개인 부문 26개)가 접수됐으며, 1차·2차 심사를 통해 20개 과제(조직 부문 10개/개인 부문 10개)가 최종 심사에 올랐다.

이날 최종 심사에 오른 과제들은 PT 발표(조직)와 서면(개인)



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향후 조직 부문 6개, 개인 부문 6개 과제가 최종 선정될 예정으로, 주요 수상작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주관하는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에 우리 회사 대표로 출품된다.

'힐스테이트 연산' 8월 분양

우리 회사가 8월 24일 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연산'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연산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8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651세대로, 조합원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1017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체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분양 전부터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역, 배산역 역세권



에 자리해 부산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부산시청과 연제구청, 국세청 등의 행정시설과 마트, 도서관, 주민센터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분양문의1811-9333

PHOTO NEWS

제주신화월드 워터파크 Grand Open!



우리 회사가 시공한 '제주신화월드 워터파크'가 8월 3일 정식 개장했다. 아시아 최초로 선

보이는 '자이언트 더블 리프' 슬라이드와 다양한 파도풀을 만나볼 수 있다.

그룹사뉴스

현대자동차그룹 라오스 홍수 피해복구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라오스에 인도적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7월 홍수로 큰 피해를 본 라오스 남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3억 5000만원의 지원금(현대차 1억1000만원, 기아차 1억10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라오스 정부와 각 구호단체에 전달해 라오스 현지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일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홍수 피해로 실의에 빠진 라오스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힘을 모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레드닷 디자인상 5개 수상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5개의 상을 동시에 받았다.

수상 목록은 ▶솔라티 무빙호텔(최우수상, 사운드 디자인 분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수소전기에너지 체험관 파빌리온(본상 2개, 브랜드 경험 설치물 및 사운드 디자인 분야) ▶파이어니어스 필름(본상, 필름&애니메이션 분야) ▶세이프티 홀로그램(본상,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야)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레드닷 디자인상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해 기쁘다"며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혁신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 최초 공개



현대·기아자동차가 8월 12일 자동차 좌석마다 서로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SSZ: Separated Sound Zone)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개발한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은 운전석, 보조석, 뒷좌석 등 각 공간에서 독립된 음향을 들을 수 있도록 음장을 형성·제어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핸드프리로 전화를 해도 통화내용이 다른 좌석에서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은 2014년에 연구를 시작해 자동차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했고, 이르면 1~2년 이내 양산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DMZ goes from war zone to a place of peace : Improving Korean relations have artists and officials imagining possibilities

August 16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ems to be improving daily. Many believe it is about time to educate young Koreans about the significance of realizing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chance that Korea can become representative of a peaceful resolution. Officials have selected the demilitarized zone (DMZ), where the tens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re most palpable, as a venue to carry out various "Peace Education" and "Peace Tour" programs.

There have been several art and culture programs held around the DMZ for many years. Currently Camp Greaves, a former U.S. Armed Forces based located in Paju, Gyeonggi, stands as an art museum for students and visitors. The venue housed American soldiers for 50 years, until their withdrawal in 2004. Beginning this year, the regional government has worked to attract more than just military enthusiasts.

The Camp Greaves DMZ Peace Platform project is a joint effort between the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and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to take the history of the camp and turn it into a stepping stone for a peaceful future between the two Koreas. Until Oct. 31, a total of 17 works by 10 artists will stand in different spots around the camp, transforming what used to be a house of arms into a museum that reflects on the meaning of life and peace.

At the base's powder magazine are two works of "Tanyakgo Project #1: Playground 0" by Kim



1 Kim Myeong-beom's "Tanyakgo Project #1." 2 The new DMZ Peace Platform art project begins with Insane Park's "Ism Ism". 3 Camp Greaves, renovated as a tourist experience zone for large groups.

Myeong-beom. An old aluminum slide and a stuffed deer with massive wooden antlers quietly stand inside a space that used to store ammunition. The antlers stretch into the air like tree branches. The twigs were collected off the ground, and glued onto the antlers to make it look as if a tree was growing out of the deer.

"Tochka City Project: Object for Emergency" by Jang Young-won are the actual protective walls that were taken down from a street in Gyeonggi. Jang Yong-sun's "Treasure N37°53'56.8212" E126°43'43.2192" uses trees and plants that were thrown away after being removed from urban areas, and creates a new

environment. Parts of a barbed-wire fence are taken from the actual fences of the camp, and displayed around the room with lights like pretty house decorations.

"Each work shows a different side of war and peace," said Lee Eun-kyoung,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Peace Platform project. "We thought about how to take the history of the site that once was a place of war and battle, of violence, and turn that into a peaceful future. Art, we believe, is a means to connect the different people and ideologies. And by putting works of art into this place, it's a way for us to move a step forward into a peaceful future." By KOREA JOONGANG DAILY

'Gods' holds off 'Spy Gone North'

August 14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topped Korea's weekend box office, holding off competition from newly-released espionage flick "The Spy Gone North."

Fantasy blockbuster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was crowned the winner of Korea's weekend box office. From Aug. 10 to 12, the "Along With the Gods" sequel sold 1.57 million tickets at 1,380 screens, accounting for 36.2 percent of the weekend's total ticket sales.

According to data provid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the film's accumulated ticket sales as of Sunday is nearing 10 million, and is likely to hit the mark this week. Adapted from Joo Ho-min's sensational webtoon of the same title, the movie, released on Aug. 1, is a follow-up to the megahit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which was released in December. The first film sold a whopping 14.4 million tickets, becoming the second best-selling film in Korean history.

By KOREA JOONGANG DAILY



Kia hands over 'Green Light Project' schools in Malawi and Mozambique

Kia Motors has handed over two further 'Green Light Project' schools to local communities in Malawi and Mozambique. The community-run schools were opened in 2014, and, combined, provide access to education for more than 2,000 students. They were constructed and established under Kia's 'Green Light Proj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rogram. The handover ceremony took place at the 'Green Light'



school in Malawi, on Aug. 1.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residents, teachers, students, Kia's CSR Management Team Leader, and Directo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ivision at Korea Food For the Hungry.

Hyundai Motor Expands Mobility Service in India

Hyundai Motor Company announced a partnership with Revv, India's fastest growing self-drive car sharing company, to develop an innovative car sharing service and conduct creative marketing activities in India. The strategic partnership including Hyundai Motor's investment to Revv sees innovative future mobility services gain the company's first foothold in the Indian mobility market. The strategic investment and



partnership will enable both Hyundai Motor and Revv to build competency and the technology necessary for leading the future mobility market in India; an evolving market showing exponential growth.

10 Minute Korean Lessons

Getting Around



▶ Finding exits

인화여대 가려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돼요?

Which exit do I need to go out of if I want to go to Ewha Womans University?
Ee-hwah-yuh-deh gah-ryuh-myuahn myuht bbawn chool-goo-ro nah-gah-ya dweh-yo?

2번이나 3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You should go out exit 2 or 3.
Ee-baw-nee-nah Sahm-bawn chool-goo-ro nah-gah-shee-myuahn dweh-yo.



▶ Taking a bus

이 버스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로 가요?

Does this bus go to Rodeo Street in Apgujeong?
Ee baw-sseu ahp-ggoo-jawng-ro-deh-o gaw-ree gahyo?

네, 타세요.

Yes, please get on.
Neh, Tah-seh-yo.

▶ Related phrases

여기 가로수길 맞아요?

Is this Garosu-gil? / This place is Garosu-gil, right?
Yuh-gee gah-ro-soo-ggeel mah-jah-yo?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fare?
Awl-mah-yeh-yo?

내릴게요!

Let me get off!
Neh-reel-ggeh-yo!

전쟁기념관 가는 버스는 어디에서 타요?

Where should I take the bus to the War Memorial of Korea?
Jawn-jehng-gee-nyuhm-gwahn gah-neun baw-sseu aw-dee-saw tah-yo?

* If you transfer to another bus or subway, you need to swipe your transportation card when you get off the bus. Even if you don't transfer, it is safer to swipe your transportation card when you get off because some buses charge differently by distance.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현대건설 사원·대리가 말하는 [회사생활 백서]

<사보신문>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짊어질 주니어들에게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8일간 이메일을 통해 회사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리 회사 사원, 대리 총 516명이 가장 없이 말하는 '현대건설 조직문화 진단과 직장생활 에너지이저 되는 법'을 살펴보자. 글·정리=강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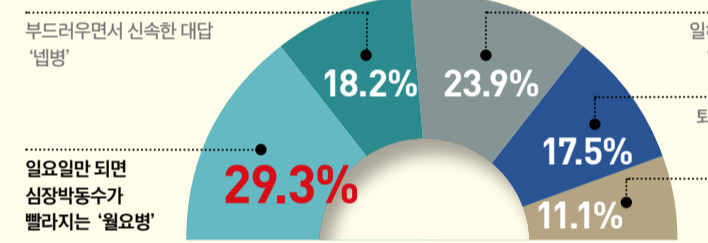


직장생활 에너지이저가 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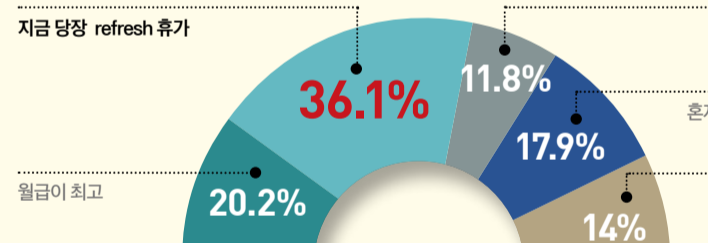
회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늘 기운이 넘치고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활력 넘치는 동료들 보며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신과 비교돼 더 무기력해져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듯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사보신문>에서 주니어 직원들에게만 진행된 설문 응답을 살펴보자. 주니어 직원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현대건설은 어떨까.

조사 기간 : 7월 27일(금)~8월 3일(금) / 응답 인원 : 사원·대리 5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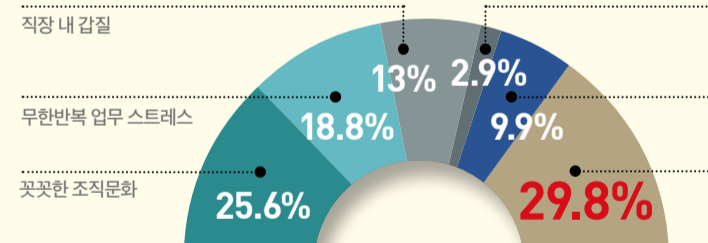
Q1 아무리 쉬어도 충전되지 않는 내가 걸린 '직장인 만성질환'은?



Q2 '직장인 병' 탈출을 위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Q3 회사 생활에서 '나'를 가장 파곤하게 만드는 것은?



Q8 나는 _____ 일 때 '에너지이저'였다.

- #승진한 날 #성공적 업무 수행
- #수주 성공 #휴가 전 날
- #내 아이디어 반영
- #무재에 달성 #성과급 받는 날
- #신입 시절 #준공 당일 #첫 현장부임
- #상사 없는 날 #동기부여
- #조직 내 인정 #월급 받는 날
- #상사의 칭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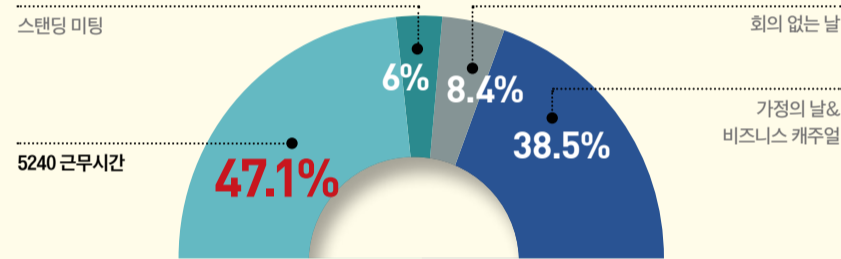


Q9 출근하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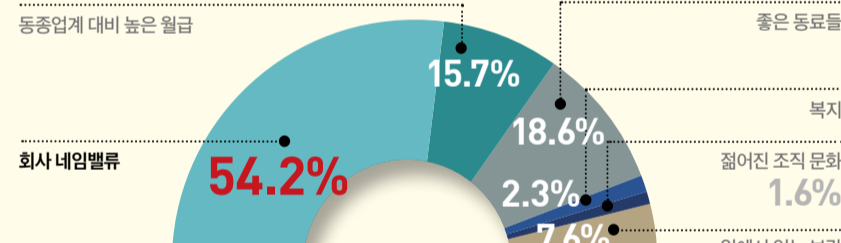
- #캐주얼 복장 #현장근무 직원 복지 혜택
- #임금 인상 #유급 여름휴가 지정 시행
- #다양한 편의시설 지원 #워라벨 보장
-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 #정확한 R&R과 인력충원
- #퇴근·주말 보장

Q4 우리 회사 문화 중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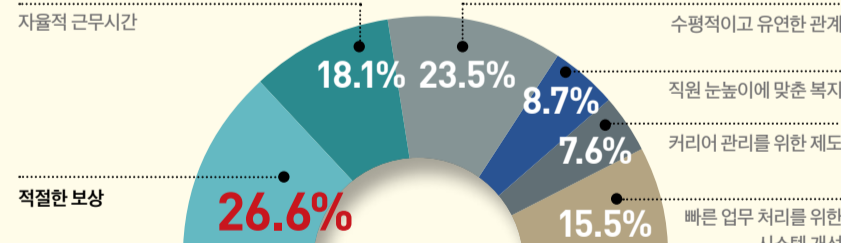
Q5 실행하고 있는 조직문화 중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것은?



Q6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Q7 직원들이 '에너지'를 갖고 일하기 위해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은?



직장과 일상에서 에너지이저 되는 법

[현대건설 생활백서] 설문 응답에서 알 수 있듯 직장인들에게 '워라벨'은 점점 개인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좋은 일거리의 기준이 되는 워라벨이라는 문화 확산 속에서 현대건설과 입직원이 함께 균형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글·안상현 『가인의 말』 작가



직장생활과 삶의 질

"사람들은 일을 하며 물입을 경험하지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반면 여가에 있어서는 과거의 경험이 별로 좋지 않고 해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물입의 즐거움(Low)』의 저자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일과 여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지적한다. 물입에 일하는 데서 행복함을 느끼고 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점이다. 반면 물입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휴가 자체는 좋게 생각하는 것이다. 당연히 일을 하는 과정이 힘들고 괴롭기 때문이다.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정확하게 짚었다. 직장생활은 싫어하지만 일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갖고자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그렇다. 문제는 대충대충 헤치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강한 직장생활 위해 자신과 업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에게 직장은 생활의 터전이자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불만의 요소가 만족은 아니다

최근 주니어 직원 대상으로 진행된 [현대건설 생활백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0% 이상이 '월'병, '일하기 싫어병' '상사병'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비율로 리프레시 휴가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종합해 분석하면 제일선에서 땀 흘리는 사원·대리들의 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직적 조직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드러났다. 건설업 특성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권위적이고 소통이 부족한 조직문화 개선은 필수적이다. PC 성능 저하와 같은 업무 환경 불만부터 지켜지지 않는 퇴근 시간과 지나친 업무량의 부담감 등이 주니어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조직 일체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현대건설이 어떤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할지 참고할 내용들이다.

짚어볼 것은 불만을 해소하는 요소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업무 만족을 주는 요소들은 ▶성장 ▶성취 기회 ▶인정받는 것 ▶책임감 발휘 등이다. 불만을 만드는 것은 회사의 ▶정책 ▶직원 관리방법 ▶임금 ▶업무 환경 같은 것들이다. 불만족스러운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과 열정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단지 불만이 없는 상태가 될 뿐이다. 실제로 일에 만족감을 느끼려면 성장과 책임, 인정받는 경험 필요하다.

그렇다고 쌓여 있는 불만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곤란하다. 일할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법은 불만족 요소들을 제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업무에 마음과 노력을 쏟는 것이다. 전자는 회사의 정책, 후자는 직원의 개인 노력 필요하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이저'가 되는 법

구체적으로 일과 삶에서 에너지이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건설 직원들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다.

1. 지향성 갖기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은 사원·대리들이 일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언제 자신이 가장 에너지이저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강한 성취감을 느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상급자의 지지'와 '팀원들의 협력으로 도전적인 일을 완수했을 때'도 큰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는 일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목표 달성욕이 높음을 말해준다. 업무로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다.

인정과 성취에 대한 느낌은 내가 잘 해나가고 있다는 확신과 관련 있다. 단순히 먹고사는 것을 넘어서 쾌감을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때 삶에 지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방향으로 하면 되겠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바로 지향성이다. 이것이 없으면 생존과 현상 유지에만 매달리고 소극적인 선택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얻기 어렵다. 만약 출근해서 하는 일들이 건디기 위주라면 재미와 열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듯 자기 목적과 지향성이 없으면 시야가 좁아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좇게 된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주로 회사의 정책이나 작업여건, 권위적인 관리자들에게 대한 불만이다. 결국 자신의 뚜렷한 목표를 잃고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 증폭된다. 상황을 해결하는 돌파구는 자신에게 있다. 회사가 개개인에게 딱 맞는 정책을 보조해줄 리 없다. 회사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 스스로 보람과 만족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스스로의 목표와 방향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일의 재미와 열정을 찾는 최선이다.

2. 자진에서 하기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일과 삶의 열정을 높이려면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삶은 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당장 출근하는 것과 업무 마감이 그렇다. 집안 청소와 육아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처럼 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주니어가

특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스스로 찾아서 가까이 하는 것, 스스로 에너지이저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해보면 마음먹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 마음은 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자 하면 기쁘고, 괴롭고자 하면 괴롭워진다. 이런 마음을 잘 활용하면 쉽게 명랑해질 수 있다. 청소나 정리 정돈처럼 당장 하기 싫은 일도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다. 목표는 일하는 괴로움을 줄여줄게 만든다. 또한 자진해서 하는 일은 자기만족을 얻게 한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도성도 가질 수 있다. 한마디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주인'이 된다.

3. 돈 이외의 것에 관심 갖기

현대건설 주니어 직원들이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는 부분이 있다. 바로 기업 브랜드다. 현대건설의 마크가 새겨진 사원증으로 느끼는 자부심은 상당하다. 회사 내에서는 복지나 조직문화에 대해 불만을 말하지만 외부로 나가면 강한 자부심과 애착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징표다.

내가 일하는 직장의 브랜드는 돈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돈 이외의 것에 집중하면 외의 물입과 열정을 경험할 수 있다. 돈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배움, 더 다양한 만남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자기계발을 해보는 것도 좋고, 캠핑을 다녀보는 것도 좋다. 지금 하는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컴퓨터 코딩을 배우보는 것도 좋다. 혹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모임에 참여해보자. 돈 이외의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목이 유도된다. 게다가 관심 분야에 대한 물입이 전제적인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세상을 보는 지평이 넓어수록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다. 직장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다면 눈앞의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다. 평소 권위적인 상사라 싫어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자. 그를 알게 될수록 다른 면을 발견해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심이 자신의 지평을 넓혀 에너지이저의 삶을 사는 기반이자 토대를 만들어줄 것이다.

Tip

행복한 삶을 위한 작은 제안

- 1 욕망의 수준을 낮춰라. 불타는 외제차보다 내 차가 낫고, '고속 승진 빠른 퇴직'보다 지금 현재가 낫다.
- 2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라.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를 받아들이기만 있다면 쇠가 모니도 부럽지 않다.
- 3 직장을 훈련소라고 생각하라. 직장은 일도 주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월급까지 주는 인생의 훈련소다. 매일 배움을 얻으면서 다면 스티브 잡스도 멀지 않았다.





서부간선 지하 도로 현장 현대건설 웹드라마 2화 <빨래는 삶의 현장>의 주인공은 현대건과 최우 수뿐만이 아니다. 깊이 지하 80m, 길이 10.33km의 터널, 서부간선 지하 도로 현장 또한 웹드라마에서 그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냈다. 서부간선도로는 지금 서울 도심의 악명 높은 정체도로에서 국내 도심지 최대 규모의 터널로 거듭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글=김보나 / 사진=이슬기

Radical changes in traffic jam in the southwest area of Seoul

Exciting Experience of Life, the second episode of Hyundai E&C's original web-based drama, was set in the 80-meter deep construction site of the West Underground Expressway aimed at constructing a 10.33-kilometer tunnel under the ground. Hyundai E&C is transforming the existing Seobu (west) Expressway, highly notorious for traffic congestion, into Korea's largest tunnel located at downtown.

The 10.33-kilometer West Underground Expressway is a four-lane toll road exclusively for relatively smaller cars including up to 1-ton trucks. Our company is in charge of the section 1 to build about 5.2-kilometer underground tunnel which starts at the start point of the Seongsan Bridge. The 5.2-kilometer underground road is comprised of a 1-kilometer open-cut section and a 4.2-kilometer tunnel. Construction cost is estimated at 343.7 billion won, accounting for 38 percent of the total project cost valued at 605.9 billion won. At the time of groundbreaking, the West Underground Expressway project was considered the largest domestic civil project performed by Hyundai E&C.

Currently, as many as 115,000 vehicles use the route per day.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West Underground Expressway will contribute largely to resolving traffic jams in the areas.

As of now, about 30 percent of the project has been completed. Less than 1-kilometer long tunnel has been dug through so far. The reason behind the slow progress lies in civil complaints from residents in Guro district where air purifying facilities are supposed to be installed. Due to the civil complaints from Guro residents, the construction was discontinued for six months from August 2016.

As soon as the construction was resumed, the construction site embarked on speedy construction and cutting back on the schedule by improving construction methods. Civil complaints are still considered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the construction site has to overcome until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s the open-cut and tunnel construction sections are densely packed with residential facilities, the construction site is putting so much work into blasting work.

What the construction site is devoted to the most is grouting.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soft ground, it selected the high-pressure grouting method, inserting 7,116 boreholes 1.2 meters in diameter throughout the 160-meter section and injecting cement into the holes.

The construction site introduced a cutting-edge system to manage workers working in confined space combined with IoT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the first of its kind among downtown construction sites in the country. The state-of-the-art control system can identify access records to confined space and locations of all workers with a chip.

Our workers are putting all their energy into the project despite special conditions of the 80-meter deep construction site, and series of civil complaints. We are pinning high hope on their effort leading to a dramatic change in the Seoul West Expressway.

교통 정체의 대명사, 서울 최장 지하 터널로 대변신

2021년 서울 서남부 교통에 혁신이 일어난다

서울 서남부의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의 시작점인 금림IC까지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는 서울 도심의 손꼽히는 교통 정체 구간이다. 그러나 2021년 3월이면 교통정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곳도 정체 도로라는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간선도로 지하 80m에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서부간선 지하 도로 덕분이다.

2007년 1월 서울시의 민간투자시행방향이 공표된 이후, 같은 해 12월 우리 회사는 서부간선도로에 지하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2015년 3월, 우리 회사는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맺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16년 3월 마침내 착공에 이르렀다. 서부간선 지하 도로로는 왕복 4차로, 소형차(최대 1t 트럭) 전용 유료도로로 지어진다. 왕복 4차로의 기존 지상도로는 무료로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총 길이 10.33km 중 1공구 공사를 맡아 성산대교 시점부부터 약 5.2km의 지하 도로를 조성하고 있다.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터널의 시작부분인 개착 구간이 1km, 터널 구간이 4.2km다. 공사금액 또한 전체 6059억원 대비 38%인 2302억 원으로, 착공 당시 우리 회사 국내 토목 프로젝트 총 최대 규모였다.

서울 내 최장 거리 터널 공사이자 최근 건설 및 도시계획의 화두인 지하공간 활용이라는 점에서 서부간선 지하 도로 현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1일 통행량이 무려 11만5000대에 달하는 서부간선도로에 지하 도로가 완공되면 일대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지·주거지 공사·민원 해결이 관건

서부간선 지하 도로 공사는 크게 개착 구간 공사와 터널 공사로 나뉜다. 개착 구간은 서부간선도로 통행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도로에 복공판(지하 공사 시 도로면에 설치하는 가설차량)을 설치한 뒤 차선을 옮겨 지상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터널은 수직구 터널 두 곳을 포함 해 발파 방식으로 굴진 중이다. 수직구 터널은 터널 완공 후에 각각 비상탈출구와 공기정화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체 60개월의 공기 중 29개월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현재 공정률은 약 30%. 터널 굴진 길이는 채 1km가 안 된다. 공정률이 더딘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공기정화시설이 설치되는 구조구의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해 2016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화한 공기를 공기정화시설의 수직구가 아닌 터널의 시점부와 종점부로 배출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기로 한 끝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준공이 미뤄지기도 하지만 민사사업인 서부간선 지하 도로로는 금융기관과의 약정 때문에 공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회사는 2017년 2월 공사를 재개하자마자 돌관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각 공정의 공법을 개선해 공기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사는 재개됐지만 민원 발생은 현장이 준공까지 안고 가야 할 최대 숙제다. 1공구 개착 및 터널 공사 구간에는 특히 주거지가 밀집돼 있어 발파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확한 발파 진동 영향력을 검토해 굴착 지반 타입 별로 화약의 양과 굴진 거리를 결정하고 시공에 반영한다.

꼼꼼한 공사, 첨단 시스템으로 안전시공 이어간다

현장은 터널 시점부의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그라우팅 공정에 힘을 쏟고 있다. 일반적인 산악 터널은 암반 지반을 굴착하지만, 지면과 가까운 곳부터 굴착이 시작되는 서부간선 지하 도로 현장은 토사 지반도 굴착한다. 우리 회사는 터널 시작점부터 160m 구간의 지하 30m에 지름 1.2m의 구멍 7116개를 삽입해 시멘트를 고압 분사하는 방식으로 지반을 강화 중이다. 어느 한 지점이라도 보강이 부족하면 굴착 시 지반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공 1공 정밀하게 시공하고 있다. 또한 지하 80m 갱내에도 차수(止水) 그라우팅 공법을 실시한다. 인접한 안양천의 물이 터널에 스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서부간선 지하 도로 현장은 도심지 최초로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밀폐공간 작업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출입 시 칩을 소지하도록 해 출입 여부와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기폭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쳤던 여름에는 국가 및 산방장제로 근로자 휴식 지침도 성실히 따랐다.

1회에 0.8~3m, 하루에 막장당 2발파씩 속 가쁘게 공사를 진행 중인 서부간선 지하 도로 현장. 공기를 맞추기 위한 바쁜 공정 속에서도 타 현장과 정부 지자체, 학생들, 해외 기관의 문의와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현장 관계자는 "대외적인 응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지하 80m라는 특수한 현장 상황, 민원 해결이라는 난제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공사에 열중한 현장 직원들, 그들의 노력으로 서울 서부간선도로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그날이 기다려진다.

Technology

지상 보강 그라우팅 공법 및 IoT 기술 접목 밀폐공간 출입관리자 시스템
Grouting method and confined space access management system combined with IoT technology

Ownership

공기 단축을 목표로 한 설계 변경 및 돌관 작업
Design change and speedy construction work aimed to reduce construction schedule

Pride

만성 교통 체증을 완화할 서울 도심 최장 터널 건설
The longest tunnel in downtown Seoul which will relieve chronic traffic congestion



1 서부간선 지하 도로 공사 현장. 상하층 2층 4차로 터널 공사 중이다. 2, 3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터널 개착 구간 공사. 복공판을 설치하고 기존의 차로를 이동해 공사하고 있다. 4 터널 발파 천공 작업 모습.



Interview

신뢰할 수 있는 No.1 리더

현장소장 강성욱 부장

강성욱 부장은 지난 5월 서부간선 지하 도로 현장에 부임했다. 3개월이라는 부임 기간 동안 강성욱 부장은 현장 분위기 및 공사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무재해 준공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 많지만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 준다면 서부간선 지하 도로 현장을 우리 회사 최고의 현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지 지하 장터터널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시공 능력을 입증해내 기뻐하며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도로 1m, 1m마다 서울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생각으로 힘내주시십시오!"

말로 천향 빛을 갠다

공사담당 김영대 차장

서부간선 지하 도로 현장은 발주처가 SPC(서서울도시고속도로), 주무관청이 서울시로 각각 다르다. 공사 관련 협의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23년 경력의 김영대 차장은 풍부한 경험을 살려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매끄럽게 이끌어오고 있다.

"아직 공정이 많이 남아 있지만 공업용수 및 상수도 시설공사 문제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통행 차량 및 보행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선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행하고 슬기롭게 앞으로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모든 직원이 지금처럼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며 준공까지 함께했으면 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기 단축 이룬다

공무팀 김봉구 대리

2011년에 입사해 올진, 대구, 경주를 거쳐 서부간선 지하 도로 현장에 온 김봉구 대리. 주로 발주처와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민사공사의 특성상 적기 준공이 필수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으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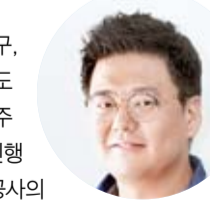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이번 현장은 같은 부서에 입사 동기 채진욱 대리가 있어 많이 의지가 됩니다. 신입사원 때 만나 줄 다한 아이의 아버지로 다시 만나게 돼 더욱 반갑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유관 부서 및 발주처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적기에 안전하게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보건담당 송수지 기사

유난히 무더웠던 이번 여름에는 보건을 담당하는 송수지 기사의 역할이 컸다. 입사 1년이 갓 지난 따끈따끈한 신입사원인 송수지 기사는 우리 회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까지 관리하고 있다.

"첫 근무를 서울의 대규모 토목현장인 서부간선 지하 도로 현장에서 하게 돼 영광입니다. 보건의 중요성에 대해 근로자들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건강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고 말씀해주는 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설레는 직딩청춘 현대건설

또 하나의 '업계 최초'가 탄생했다. 우리 회사는 건설업계 최초로 웹드라마 <설레는 직딩청춘, 현대건설>을 제작했다. 반응도 뜨겁다. 6월에 공개한 1편은 순식간에 23만 뷰를 돌파했고, 7월에 나온 2편 역시 10만뷰를 넘어 순항 중이다. 폭염 속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설레는 직딩청춘, 현대건설>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대공개. 글=박연희

Behind the stories of Hyundai E&C's web drama

Our company has released its original web-based drama, *Young and Exciting Hyundai E&C*. It i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s original online dramas produced by businesses have been gaining popularity in trend-conscious industries such as beauty and fashion.

The series of the newly released web drama pleasantly depict how Hyun Dai-geon, a newcomer in Infrastructure works, settles down in Hyundai E&C. The first episode unveiled in June, *This Company Is A Bit Strange*, has gained 230,000 views in a short time, and the second episode aired in July, *Exciting Experience of Life*, has attracted 70,000 views within one week after the release.

Our employees, who passed an audition, starred in the web drama as some lead roles. It is a rarity that employees get cast in online dramas presented by companies. To tell genuine stories of Hyundai E&C, our company decided to cast our employees and held an audition in April.

On the day of the audition, it came as a surprise to the production crew that so many talented employees participated in the event. Viewers can check the great acting of those who were cast but did not appear on the screen yet in the third and fourth episodes in coming Sept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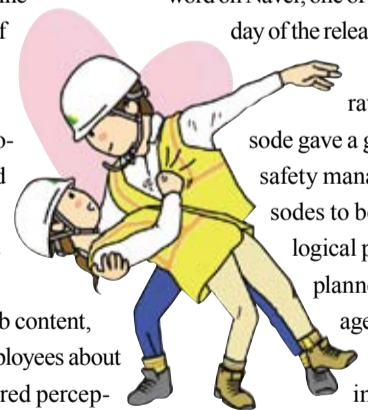
In order to enhance the represented reality of the web content, officials of our company carefully listened to young employees about their mistakes and worries at the workplace and gathered percep-

tions of Hyundai E&C posted on online communities for office workers. Moreover, they visited a construction site three times to get stories to which anyone working at construction sites can feel rel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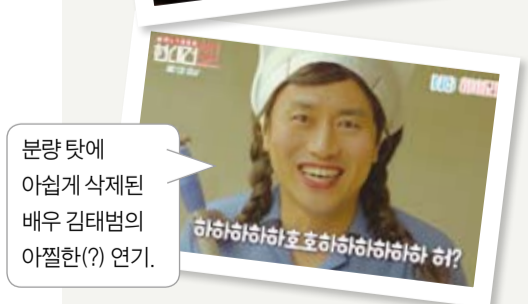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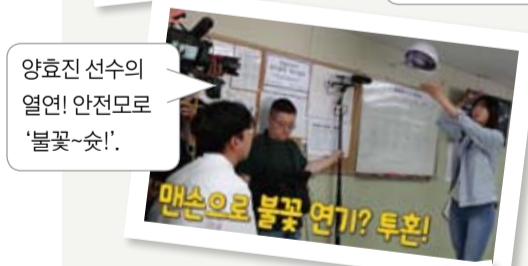
The web-based drama was shot at a seldom seen location. The second episode is set in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West Underground Expressway project designed to build the 10.33-kilometer four-line road underground.

The online drama went viral among the media and netizens. It was featured in various media outlets as a successful case of "branded contents" outright produced and designed by corporations or brands. The first episode of the web drama garnered over 3,500 responses such as replies and likes. Moreover, "Hyundai E&C" topped the list of the real-time search word on Naver, one of the most famous online platforms in Korea, on the day of the release of the first episode.

The first episode focused on the changing corporate culture of our company, while the second episode gave a glimpse of Hyundai E&C's capability regarding safety management and construction. The subsequent episodes to be released in September will showcase technological prowess and globalization of our company. "We planned for producing the web drama appealing to all age groups," said an official. "We will strive to use the online medium to build a young and positive image for our company."



사내 오디오부터 연기 모습까지... 현장 사진 대방출!



#이거_레알! 현대건설에서 웹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설레는 직딩청춘, 현대건설>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 회사가 웹드라마 <설레는 직딩청춘, 현대건설>(이하 '현대건설')을 제작했다. 웹드라마는 10분 내외의 짧은 스토리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시청이 가능해 20~30대 젊은 층과 모바일 유저에게 각광받는 콘텐츠다. 젊은 트렌드에 민감한 뷰티 및 패션 업계 위주로 확산되던 기업형 웹드라마를 건설업계에서 시도한 것은 우리 회사 처음이다.

<현대건설>은 토목사업본부에 입사한 신입사원 '현대건설'의 현대건설 적응기를 유쾌하게 그린다. 출연진도 특별하다. 웹드라마 <연애포자>에서 열연한 배우 김태범이 주인공 '현대건설'을 맡고 (하트시그널) 시즌2에서 주목받은 송다은이 걸크리시 아이퀸 '최우수' 대리로 분했다. 지난 6월 공개된 1편 [이 회사 좀 낯'낯'다는 단시간에 23만 뷰를 기록했다. 7월 27일 공개한 2편 [별'라는 삶의 현장] 역시 공개 일주일 만에 7만 뷰를 돌파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내 오디오까지 진행?

<현대건설>에 등장한 이도루 부장, 까를로스 과장, 박진감 대리, 이슬기-이현지 사원은 모두 사내 오디오를 통과한 우리 회사 직원들이다. 기업 웹드라마에서 직원들이 배우로 출연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 우리 회사는 회사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직원을 출연시키기로 결정하고 4월 17일 오디오션을 진행했다.

오디션 당일, 제작진은 깜짝 놀랐다. 사내에 끼 넘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던 것. 남녀 폼비 연기를 준비해 오거나 걸 그룹의 춤과 노래로 끼를 뽐내는 등 오디션 참가 인원만 서른 명이 넘었다. 캐스팅 됐지만 아직 얼굴을 보지 않은 직원들의 열연은 오는 9월 공개되는 3~4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입사원 속마음부터 직장인 커뮤니티까지 뒤졌다?

제작을 맡은 휴로인터랙티브에서 웹드라마의 전체 구성을 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그 속에 들어가 '현대건설적인 소스'를 찾아다녔다. 회사 관계자는 웹드라마의 사실성을 위해 사내 대리의 실수담과 고민거리 등 젊은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대건설에 대한 이미지를 취합했다. 또 현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사례를 얻고자 현장을 세 번이나 찾아가 취재했다. 출연자들의 사원증과 명패까지 만드는 디테일함까지 신경 쓴 것은 물론이다.

웹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역대급 로케이션?

<현대건설>에는 웹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규모의 촬영 현장이 나온다. 2편의 배경이 된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공사는 성산대로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나들목(IC)을 잇는 총

연장 10.33km의 왕복 4차선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배우들은 아파트 20층 높이에 해당하는 지하 54m 터널에서 촬영에 임했다. 현장 촬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데는 우리 직원들과 협력사(삼호개발)의 적극적인 협조가 컸다. 협력사는 사무실을 출연자 대기실로 기꺼이 내줬다. 현장 직원들도 주차부터 안전도, 안전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다. 2편에 현장 직원과 대학 실습생, 협력사 직원들이 보조 출연자로 등장한다고 하니 눈 크게 뜨고 찾아보자.

팬미팅?

<하트시그널> 시즌2의 열혈 애청자, 배우선수 양효진, 국가대표 '블로킹 여왕' 양효진을 응원해 온 배우 송다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흡사 팬미팅이었다. 만나자마자 서로의 '왕 팬'임을 확인한 두 사람은 SNS를 팔로우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현장사무소는 마치 양효진 선수의 사인회장 같았다. 현장 직원들은 줄을 서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었다. 첫 드라마 촬영으로 떨렸던 텐데도 양 선수는 직원들의 사인 제안에 모두 응했다. 양효진 선수는 "처음 해본 연기자 어색했지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재미있게 촬영했다. 개인적으로 큰 추억거리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외부에서 더 주목한다?

<현대건설>은 언론과 네티즌들이 더 주목했다. 현대건설 웹드라마는 기업이나 브랜드가 기획·제작해 적극 참여한 콘텐츠를 일컫는 '브랜드드 콘텐츠(Branded Contents)'의 성공 사례로 다양한 언론에 소개됐다. 네티즌들이 1편에 보인 반응(댓글, 좋아요)만 3500건 이상. 현대건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상에는 "현대건설이 이런 분위기인 줄 몰랐다" "정체가 실수담을 보니 신입사원 시절이 생각난다" 등 다양한 댓글이 쏟아졌다. 심지어 1편이 공개된 날에는 '현대건설'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1편이 우리 회사의 변화하는 기업문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2편에는 건설 현장의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현대건설의 안전관리·시공능력 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 중 공개될 3~4편에서는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글로벌한 면모를 담을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위 '아재 문화'로 일컬어지는 딱딱한 건설회사에 대한 선입견을 벗고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웹드라마를 기획했다"며 "(현대건설)을 통해 젊고 긍정적인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입사원 현대건설의 직장생활은 계속해서 설렘 수 있을까? 그의 성장 스토리가 기대된다.

Interview

#현대건설 _ 걸크리시 최우수 대리

배우 송다은



"웹드라마 촬영 전에는 현대건설이 건물만 짓는 줄 알았어요. 지하에 터널을 뚫고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다는 사실은 촬영을 하며 알게 됐죠. 건설사는 경직된 분위기로 알려져 있는데 사내 분위기가 좋아 깜짝 놀랐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 본사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현대건설>을 보며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 송다은도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의 _ 정석 현대건설 사원

배우 김태범



"지하 54m 아래에 있는 터널을 마추었을 때 마치 에어리얼 탑사를 하러 온 과확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의 삶과 현대건설의 기술력이 더해져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시는 분들 모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주세요. 현대건설 파이팅!"

#남다른 _ 현장부심 박진감 대리

대리 박지남



(부천시청모형원 현장)
"웹드라마 공개 후 동료들한테서 전문 배우와 연기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추어 극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뒤는 실력이 나온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라는 제 좌우명처럼 일도 취미인 연기도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현대건설인이 되겠습니다!"

#감독님 _ 설명마니아 이현지 사원

사원 이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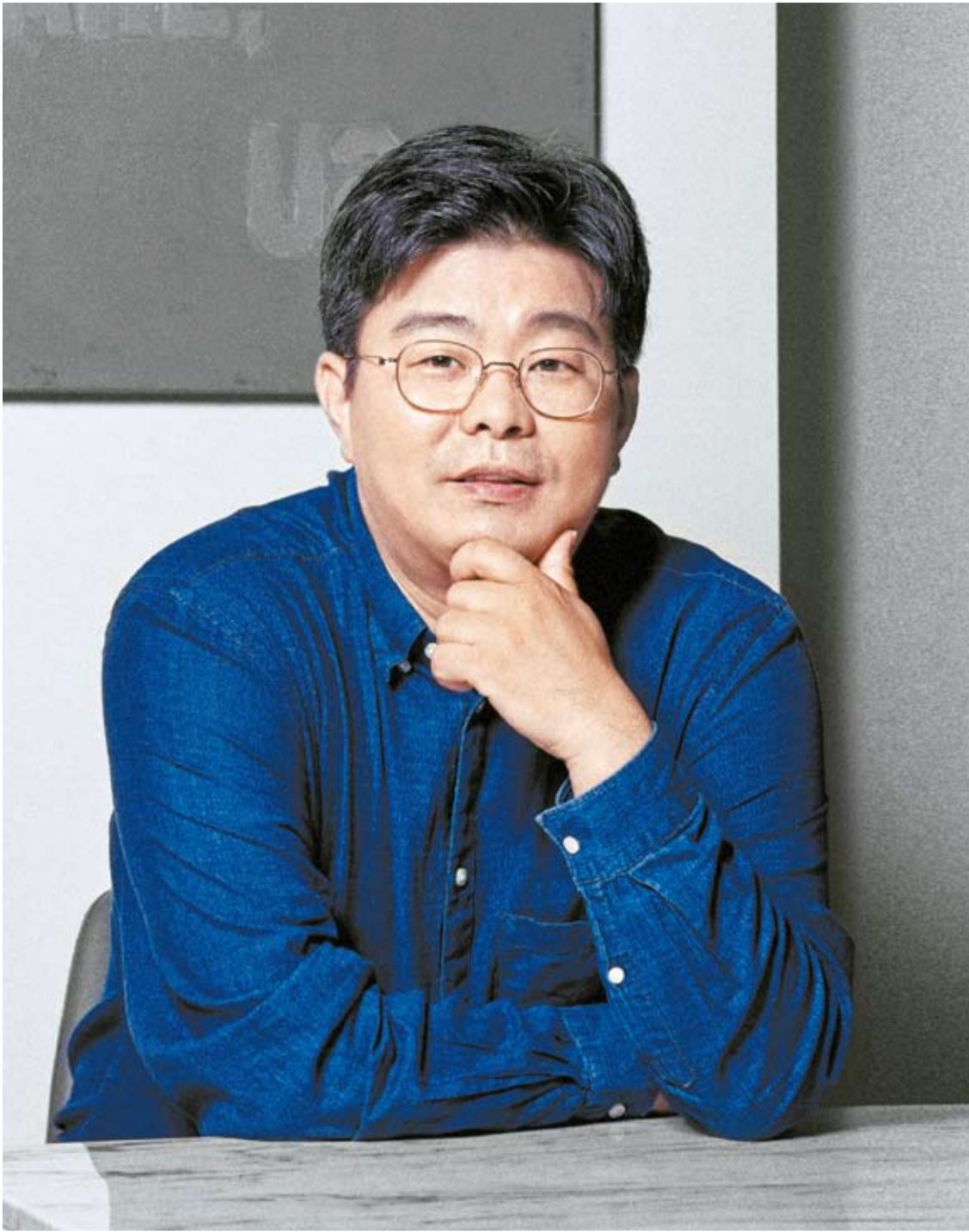


(사부간선 지하도로 현장)
"현대건설) 서비스 받고 드라마 (미생)과 (하찮아도 괜찮아)가 떠올랐어요. 두 드라마의 느낌을 생각하며 사내 오디오션을 준비했죠. 저는 2편의 배경이 된 서부간선 지하도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를 주신 웹드라마 제작진, 늘 응원해주시는 현장소장님 이하 모든 현장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촬영현장의 _ 리더 휴로인터랙티브 PD 김성래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열정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이를 시나리오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종종 현대건설 사원과 최우수 대리의 씬을 기대해 드리는 질문을 받는데, 두 사람의 인연은 3~4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리얼 청춘 드라마 (현대건설)를 끝까지 사랑해주시기 바라며, 저 역시 극적인 엔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미지의 숲'으로 떠나는 모험 뇌과학자 정재승의 새로운 고침

피플 인사이트 정재승 박사가 최근 『열두 발자국』을 펴냈다. 지난 10년 동안 1000회 이상 진행한 강연 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12가지 내용만 추렸다. 의사 결정, 창의성, 놀이, 결핍, 습관, 미신, 혁신,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단 하나라도 귀에 콧 박히는 단어가 있다면 정재승이 권하는 '미지의 인간 숲'으로 탐험을 떠나보자. 글=임지예 <채널E스> 기자 / 사진=이관형, tvN

10년간의 뇌과학 강연 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12편을 선별했다. 책을 하나로 묶는 큰 주제는 '뇌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이다. 내 인생의 화두 같은 질문이기도 하다. 나이 마흔이 넘어가니까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뇌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울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지?' 이런 비단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연령대가 가진 고민이라고 생각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들에 대해 생각해본 책이다.

'선택하는 뇌'를 책의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았다. 사람들은 선택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다. 선택했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움직이는 과녁을 맞는 것처럼 분명한 답이 없다. 잡았어야 할 기회

를 놓쳤다면 쉽게 떨어버리는 편이 낫다.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 현명하다. 이런 신경과학자들의 의사 결정법에서 배운 것이다. 그동안 내겐 정말 많은 기회가 왔다. 돌이켜 보면 '이걸 왜 했지' 싶은 것도 있고, 정말 잘한 선택도 있었다. 수많은 기회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알게 됐다. 물론 내 선택이 옳지 않았을 때도 있다. 스스로의 동력에 의해 얻어지는 일도 있으니까. '이건 절실하게 꼭 해야 한다, 안 해야겠다'고 선불리 판단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의사 결정 자체에 큰 부담감을 갖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일이면 하되, 다만 적절한 시기에 선택하고자 노력한다.

'새로고침' 편에는 직장인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가 특히 많았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

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다양한 새로고침의 욕망들을 담아 '새해 결심'을 한다. 그리고 설날에 한 번 더 한다(웃음). 인간은 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하는 동물이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특성은 장점이기도 하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진행된다면, 그 자체로도 큰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 챗터는 뇌 과학자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쿨하게 들여다본 이야기다.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자고 강조하지도, 습관이 갖고 있는 힘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다만 내 삶에 있어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그것조차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죽음을 앞둔 때를 상상해보라는 이야기다. 나는 종종 '내 삶이 3개월 남았다면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을지'를 상상해보곤 한다.

"결국 중요한 건 삶의 태도"라고 강조했는데,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추론이 우리 일상 안으로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는 회의주의자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고 그러기 위해 애쓴다. 회의주의적인 삶이란 어떤 것도 쉽게 믿지 않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려 애쓰는 태도다. 근거를 중심으로 현상을 판단하고,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인드를 갖는 삶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리처드 파인먼, 리처드 도킨스, 마틴 가드너 등 많은 학자가 회의주의자였다. 이 챗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균형 감각을 갖자는 이야기다. 모든 걸 간간한 눈으로 보되 극단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것, 각각의 시각에서 장점을 갖추되 놓칠 수 있는 것을 경계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뇌과학자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는 바로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KAIST에서 학생들의 창의성 워크숍 때 사용하는 훈련 방법이 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설명해준 후, 3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강의실에서 그대로 앉아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내 연구실 책장에서 아무 책이나 꺼내 들어 무작위로 문장 하나를 고르게 했다.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문장 하나를 뽑아 이 두 문장을 넣어 위의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 결과는? 첫 번째 그룹은 무난하지만 다소 뻘한 이야기를 만들어왔고, 두 번째 그룹은 이어지지 않는 두 문장 사이를 매우기 위해 엉뚱한 뇌 영역을 사용하게 되면서 아주 기발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물론 영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나 역시 글을 쓸 때 비슷한 원리를 사용한다. DNA에 관한 글을 써야 한다면 오히려 문학 서적을 뒤적거린다. 기존의 유사한 글을 쓰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인간 뇌를 닮은 인공지능'이라고.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내



정재승 박사는 tvN <말할산장>에 출연, 과학 지식을 쉽게 설명하며 대중의 호감을 얻었다.

리는, 뇌를 닮은 인공 지능을 만들려고 한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과 상호 작용하려면 결국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도 인간처럼 사고해야 우리가 불편을 겪지 않는다. 앞으로 인간의 직업은 사회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은 인공 지능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데이터 자체를 검토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는 고등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며 "기술 계급 사회가 가장 두렵다"고 했다.

과학 기술을 잘 이해하고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기술을 두려워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불평등을 생각해야 한다. 또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의사 결정을 맡기고 결재만 하는 존재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기계 문명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다줬지만,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뇌가 되려 한다.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 계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 값에 의존한다면 의사 결정의 주체는 인공지능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다. 기업이 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함께 일해야 한다. 인공지능팀, 빅데이터팀, 서비스기획팀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같이 일하게 해야 한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소통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책에 "인간이라는 미지의 숲으로 탐험을 떠나요"라는 문장을 새겨놓았다. 열한 번째 발자국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도전하는가'를 읽는데, 이 문장을 곱씹게 되더라.

인간은 영원한 탐구 대상이다. 과학자들이 인간이라는 숲을 이해하기 위해 미지의 탐험을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지식을 깨닫지 못했을지 모른다. 인간의 본질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수단 발자국의 탐험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 순응하고 산다면 혁신과 혁명은 일어날 수 없다. 이 살벌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려면 탐험가의 기질을 소유해야 한다.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뉜다. 큰 조직 안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 조직이라는 우산이 없어도 홀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조직이라는 우산을 거뒀을 때도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로 대체되기 어려운 존재로 성장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노력도 해야 하고, 현명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감하되 무모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한 준비에 철저한 사람이 곧 시대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나이드는 게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정재승도 그렇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는 일은 두렵다. 사회적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KAIST 교수가 아닌 인간 정재승으로 세상에 나와야 한다. 내가 바라는 건 하나의 직업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일이다. 과학자인데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사회적인 일에도 앞장서는 지금까지 없던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다. 여전히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어른을 볼 때마다 나쁜 모범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르친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계동산책 분위기를 있는 맛집을 찾는다면 미술랭 3스타 셰프의 맛집으로!

미술랭 3스타 셰프 맛집, 익선잡방



야속을 정할 때 SNS를 통해 '분위기 좋은 맛집'을 검색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특히 연인과의 데이트를 앞두고는 음식의 비주얼과 맛은 물론 인테리어, 2차 장소까지 세심히 찾기 마련이다. 최근 SNS에서 핫한 '익선잡방(益善雜方)'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맛집이다.

익선동 한옥 골목에 있는 '익선잡방'은 미술랭 3스타 출신 셰프의 요리를 가성비 좋게 맛볼 수 있는 퓨전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브런치는 물론 가벼운 비스트로 메뉴까지 다양한 요리가 준비돼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요리책인 '수운잡방(需雲雜方)'에서 따온 이름은 '더 좋을(익선) 여러 가지 방법(잡방)'이라는 뜻. 최상의 맛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오너셰프의 요리철학이 담겨 있다.

대표 메뉴는 마스카포네 치즈 오믈렛과 시즈닝 새우 로제 파스타. 맛집탐방 프로그램 <여기

Go)에도 소개된 오믈렛은 신선한 계란을 체에 걸러 만든 부드러운 스크램블에 마스카포네 치즈와 버섯을 추가해 쫄깃한 식감과 함께 단백질을 자랑한다. 여기에 톱베이크와 소시지, 샐러드를 곁들여 푸짐한 양에 든든함까지 느껴진다. 새우 파스타는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로제 파스타에 스리라차 소스를 추가해 느끼함을 줄이고 매콤한 감칠맛을 더했다. 파스타에 가득 들어 있는 통통한 새우는 타코 양념이 돼 있어 짭짤하면서도 고소하다.

이 집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인테리어. 핑크색의 블링블링한 조명과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한 실내, 화려한 플레이팅은 20~30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덕분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주목 받으며 입소문이 자자하다.

연인과의 데이트 혹은 친구들과의 기분 전환을 원한다면 음식의 맛은 물론 분위기까지 좋은 '익선잡방'에 들러보자. 미술랭 3스타 셰프의 요리에 향긋한 맥주 한 잔을 곁들인다면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글=황선영 / 사진=이슬기



익선잡방

주소 서울 종로구 익선동 166-80
영업시간 평일 오전 11시30분~오후 9시30분 (브레이크타임 오후 4시~5시30분)
문의 02-765-3418

1 매콤한 시즈닝 새우 로제 파스타. 2 부드러운 단백한 마스카포네 치즈 오믈렛. 3,4 한옥을 리모델링한 익선잡방 외부와 내부 전경.



현대 미술랭가이드



박경형 차장

★★★★☆ 4/5점

러시아식 스테이크인 비프 스트로가노프가 인상적입니다. 버터 향이 가미된 진한 소스에 사워 크림으로 새콤함이 더해져 다채로워요. 소스가 국물처럼 듬뿍 들어 있어 끝까지 그 맛이 살아있네요. 독특한 덮밥을 드시고 싶다면 이곳을 적극 추천합니다.



도호준 과장

★★★★☆ 4.5/5점

스테이크의 맛이 정말 끝내줘요. 최고급 부위인 살치살을 알맞게 구워 숯향과 함께 부드러운 육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 스테이크를 좋아해 스테이크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이곳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광원 대리

★★★★☆ 4/5점

점심시간이라 배가 고팠는데 푸짐한 오믈렛을 먹으니 정말 든든하네요. 짭짤한 소시지와 베이컨을 먹으니 맥주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단독름이 있으니 저녁에 와도 좋을 것 같네요. 동료들과 함께 다시 와야겠어요!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을 제시하면 **탄산음료 1잔 제공(1인당)**
-9월 한 달간-

문화 책갈피

인기 소설과 영화가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원작과 또 다른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원작의 감동을 두 배로! 무비컬(Movie+Musical) Best 5



바넘: 위대한 쇼맨

출연 유준상, 박경형, 김소향
기간 8월 7일~10월 28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서커스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만든 PT 바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술쇼와 저글링, 공중그네 등 기존 뮤지컬에서 볼 수 없었던 서커스 묘기를 자연스럽게 녹여 다양한 볼거리를 완성했다. 오리지널은 탄탄한 작품성을 토대로 토니상 3개 부문, 올리비에상을 수상했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출연 강타, 차지연, 김선영
기간 8월 11일~10월 28일

장소 잠실사롯데시어터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메릴 스트리프 주연의 영화로도 잘 알려진 이 작품은 시골마을의 평범한 주부 프란체스카와 사진작가 키키에이드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그렸다. 이번 공연에서는 북면가양에서 5연승한 배우 차지연과 HOT의 강타가 출연해 풍부한 감정 연기와 가창력을 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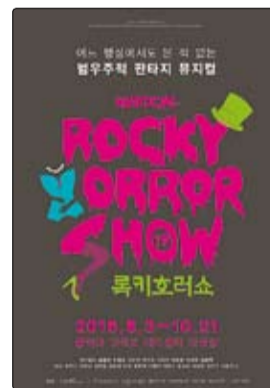


김종욱 찾기

출연 유준호, 서지수, 박세용
기간 1월 26일~오존런

장소 대학로 컬처스페이스 엔유

누적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한 창작 뮤지컬. 사랑받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여자가 '첫사랑 찾기 주식회사'의 그 남자와 함께 첫사랑 김종욱을 찾아가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렸다.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환상을 간직한 여성의 심리를 현실감 있게 표현해 많은 관객의 공감을 받았다.



록키호러쇼

출연 마이리, 송용진, 감미연
기간 8월 3일~10월 21일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B급 문화의 지존'이라 불리는 뮤지컬로 갓 결혼한 순진한 커플이 외계인 프랑켄퍼터의 성(城)에 우연히 들어가 난생처음 보는 기괴한 난장판을 경험한다는 내용. 배우와 관객이 함께 춤추고 즐기는 공연으로 SF와 판타지, 코미디, 색정극 등 다양한 장르가 버무려졌다.



아이언 마스크

출연 이창성, 산들, 박준규
기간 9월 13일~11월 18일

장소 서울 광림아트센터

'아이언 마스크'는 세일이 흘러 총사직을 은퇴한 삼총사, 아토스, 아라미스, 포르토스와 총사대장이 된 달타냥이 루이 14세를 둘러싼 비밀을 밝혀내는 과정을 담았다. 리어나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작품은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액션, 화려한 무대를 자랑한다.

로메로브리토 한국 특별전 2018. 6. 30 ~ 11. 15

대원뮤지엄 /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6층 / 02-6373-3365



Color of Wonderland

따뜻함, 낙천주의, 사랑을 표현하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로메로 브리토의 한국 특별전이 지난 6월부터 용산 아이파크 대원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다. 국내 최초,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로메로 브리토 전시는 총 100여 점의 회화와 조각, 다양한 영상 미디어 작품들로 구성된다.

“예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의 나눔과 공유에 있다”고 말하는 작가는 사랑과 행복이 평범한 일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그림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소재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사랑과 행복을 표현한다. 화려하고 선명한 색채, 두꺼운 검정 선을 사용하는 패턴은 사물을 다각도로 표현하는 큐비즘(Cubism)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로메로 브리토를 두고 ‘피카소에 마티스의 색을 입힌 모던아티스트’라고 평가했다.

전시는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뉜다. ‘LOVE’ ‘HAPPY’ ‘HOPE’ 등 사랑과 행복을 주제로 한 각 색션에서는 밝고 행복한 표정의 사람과 동물들이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뽐내고 있다. 또 유명인의 초상화 시리즈 ‘CELEBRITY’와 세계 유수 기업들과 진행한 ‘COLLABORATION’ 색션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등 만화 캐릭터와 마돈나,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전시 관람은 ‘행복예술가’라는 그의 별칭답게 사랑, 행복, 희망의 에너지를 가득 받고 오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다.



- 1 New follow me
- 2 Love in the air too
- 3 Pele's bicycle
- 4 Salvador Dali
- 5 Coffee flower
- 6,7 전시장 이미지

5

6

7